

가정폭력 가해자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개입에 관한 연구

권진숙·전석균*

본 연구는 한국에서 보호관찰 처분으로 수강명령을 받은 10명의 가정폭력 가해남편들을 위하여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이 집단프로그램은 Dr. Neidig가 10회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배우자학대 집단프로그램을 한국의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개발하였으며, 인지행동이론과 의사소통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집단프로그램이 가해자들의 폭력행동을 중지하도록 돕는 데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고, 향후 가정폭력 가해자들을 위한 한국적 모델개발을 위한 선행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집단은 두 명의 공동치료자가 매주 1회, 2시간 30분 동안, 총 12회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평가는 네 가지 자료- 1) 배우자학대 초기 조사서, 2) 매 회기 녹화된 비디오를 근거로 한 두 명의 보호관찰관과 집단치료자들의 집단과정 분석자료, 3) 자존감 척도, 4) 매 회기 가해자들이 기록한 일일평가지와 최종평가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이들 평가자료에 의한 본 프로그램의 결과를 보면, 모든 자료에서 일관성 있게 프로그램의 목적을 만족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가정폭력 가해자 프로그램의 한국적 모델을 위한 선행적 연구로서 실천적인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

* 권진숙·전석균(고려스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서론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정폭력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가정폭력은 1962년 이래 지속적으로 공적체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다루어져 왔다. 1970년대부터 가정폭력은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는 사회사업국(*department of social work*)·아동보호 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로, 군인과 그 가족을 위해서는 가족옹호 프로그램(*family advocacy program*)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공식 전달체계가 확립되었다. Bass와 Rice는 1983년 당시에 미국 내 배우자학대 관련 프로그램수가 116가지에 달하고 있으나 그 수요를 질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정도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염려했다. 또한 이 서비스 프로그램들은 주로 배우자를 분리시키고 여성들로 하여금 ‘쉼터’를 이용하도록 하면서 개별적인 재혼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하였다. Taylor는 이러한 사실에 동의하면서 많은 부부들은 폭력이 중단된다면, 개별적으로 분리되기보다는 부부로 결합되기를 원한다고 하였다(Taylor, 1984:11~18). Weitzman 과 Dreen(1982)도 대부분의 배우자학대 치료프로그램들은 쉼터를 통해 배우자를 별거시키고 부인들을 ‘구조하는 것’에 매달려 있다. 치료는 일반적으로 성(*gender*)에 따라 분리되어졌고, 학대적 관계로부터 영원한 분리를 돕기 위해 클라이언트를 돕는 것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개인을 재혼시키는 일에 매진한다고 지적하고 있다(Neidig, 1984:5, 재인용)했다.

우리나라는 가정폭력 문제해결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최근 들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는 있으나 확인된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개입을 할 것인가에 관한 전문적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신은주, 1995), 배우자폭력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대부분 여성단체로서, 이미 문제가 만성화되어 버린 사례가 많다(권진숙, 1996). 배우자폭력에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은 매 맞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경호, 1997; 김인숙 외, 1997; 김지영, 1995; 김희자, 1996; 박미은, 1998; 신은주, 1995; 이승열, 1995; 한미자, 1995)와 부부를 대상으로 개입한 소수의 연구가 있다(권진숙, 1996; 김재엽, 1995; 허남순, 1995). 폭력남편에 대한 연구로는, 여성주의 방법을 사용한 구타남편에 대한 사례연구(김인숙, 1998)와 우리나라의 폭력남

편 개입모델의 전체적인 방향과 통합적인 틀을 제시한 이은주(2000)의 논문이 있다.

우리나라 배우자학대 실태에 대한 김재엽(1998:133)의 보고에 의하면, 전체 부부 중 연간 31.4%가 배우자학대를 경험하고 있으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며, 가족폭력에 대한 우리나라의 형편은 미국의 1980년대 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소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여성단체와 법률가들의 힘의 결집으로 1997년 12월에 가정폭력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1998년 7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고 있어 이 분야에서 더욱 체계적인 개입이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법이 제정된 이후, 국가기관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경기도 수원 보호관찰소에서는 1999년 3월부터 5월까지 최초로 가해자 집단프로그램이 실시되었고, 이후에 서울 보호관찰소의 주관으로 본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시작을 위해서는 다학문체계간에 충분한 준비와 논의과정을 거쳐서 프로그램의 내용과 기간, 참가대상자 등에 대한 협의를 하는 등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본 프로그램을 실험적으로 운영 실시하여 평가해 봄으로써 향후에 더욱 나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현재, 폭력남편에 대하여 다양한 임상적인 개입모델이 시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모델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폭력남편을 위한 한국적 개입방법 모델을 개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2. 이론적 배경

1) 폭력남성의 특성

폭력남성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Saunders(1984: 2)는 대부분의 폭력남성이 수줍음이 많고, 단호하지 못하며, 우울한 성향이 있고, 낮은 자존감과 질투심이 있어서 상대방의 비판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Davis(1987: 308)는 폭력남성의 특성은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사회지지망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으며, 상대방을 탓하고, 자신의 역할을 혼동하며, 분노의 대상을 전위(*displace*)하고, 충동조절 능력에 결함이 있으면서 소유욕이 강하다고 하였다. Elbow(1977: 516~517)는 배우자를 학대하는 남성의 공통된 특성으로 다툼의 원인에 대한 투사, 자율성을 용납하지 못함, 배우자나 결혼에 대한 기대에 집착, 친밀감의 결핍을 들고 있다. Crites(1990: 12)는 폭력가해자가 피해자를 탓하는 것은 자존감의 감소를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Star도 폭력가해자들은 낮은 자존감과 의사소통과 문제해결기술의 결핍이 있으며, 소유욕이 강하고, 문제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분노의 상대를 전위하며, 충동조절과 감정이입이 결핍되어 있고, 폭력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Star, 1980: 34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폭력남성의 특성을 요약해 보면, 분노나 충동조절의 결핍과 폭력적인 배경, 낮은 자존감과 자신감의 결여, 우울 성향, 의사소통과 문제해결 기술의 결핍, 투사나 분노대상의 전치 등을 들 수가 있다.

2) 폭력남편에 대한 개입이론과 프로그램

가정폭력에 대한 개념과 정의는 이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통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힘들다. 따라서 폭력행동, 학대, 방임 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동의가 없을 뿐 아니라 과연 누가 학대자인지에 대한 기준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이 되기 쉽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동일한 사례에 대해서 의사, 사회복지사, 법률가, 경찰, 심리학자 등이 각각 다르게 정의하기도 한다. 이런 근본적인 시각차이는 개입방법과 예방을 위한 접근방법에도 영향을 미친다(Pagelow, 1984: 27).

가정폭력을 보는 이론은 일반적으로 정신의학적 차원, 심리사회적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분류되는데, 폭력남편을 위한 개입프로그램은 이러한 이론들에 기반을 두고 발달되었다(Wallace, 1996: 7~14. 재인용). 그러나 어떠한 이론도 가정폭력을 설명하는 단일이론이 되지 못하며, 어떠한 치료모델이 가장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이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Neidig는 “DCCP가

군대나 법원명령과 같이 강제적으로 참석시키는 상황에 직접 적용될 수 있으며, 강력한 참석의지를 가진 자발적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예비실험 결과(Neidig, Freedman, & Howell, Note 3) 높은 수준의 성공률을 보였고, "자발적 참여가 긍정적 행동변화를 위해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도 증명되었다"고 덧붙였다. 효과면에서도 그는 주 2시간씩 10회기를 만난 여러번의 실험(Friedman, Note 4)에서 프로그램 참석자 10명 중 8명이 프로그램 참석 후 6개월 후의 사후관리 때까지 폭력이 없이 유지되었음을 보여 주었다(Neidig, 1984: 5~6,)고 했다. Duluth학대개입 프로젝트에서 5년간 약 100명의 기록을 검사한 후 Melanie Sheparc(1992)는 개발하지 않은 참가자가 약 60%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Gondolf(*in press*)는 부부상담이 가해자 집단모델보다 더 효과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이 프로그램에 의뢰되는 사람들의 유형은 전형적인 가해자프로그램에 의뢰되는 사람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가족폭력 분야의 비평가인 Richard Tolman과 Jeffrey Edleson(1995)은 최근 문헌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가해자 치료가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례의 50~80%까지 성공적인 결과를 볼 수 있었다고 했다. Gondolf 역시 프로그램을 마친 그 시점에서는 60~80%의 폭력중단이 발생한다고 추정했다(Kemp, 1995: 244~245).

앞의 다른 이론모델들에 대해서는 김인숙(1998)의 연구에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집단프로그램의 치료이론으로서 인지행동 모델과 의사소통 모델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인지행동 이론

인지-행동 치료법은 인간의 행동과 과업수행 능력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본다. 이 이론은 인간의 무의식적인 정신내용을 찾아내는 것보다는 의식적인 인지과정을 변화시키고 개발시킴으로써 정신적 인지능력을 더 많이 넓힐 수 있으며, 사람들이 인지활동을 반복하는 동안 거의 무의식적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Bandura는 이러한 생각과 그 결과로 생겨나는 행동의 일상화(*routinization*)는 행동을 지휘한다고 믿는 무의식적 정신활동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했다(Bandura, 1986: 5). 이 치료법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Ellis의 합리적 정서치료, Beck의 인지치료, 그리고 행동주의 기법들이다. 또한 이 치료법은 클라이언트의

신념이 그들의 실제 행동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믿는다. 따라서 치료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행동은 단순히 관찰되어진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를 방해하는 다양한 생각과 감정이 각자의 아동기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이때 이들에게 스스로의 왜곡된 인지와 부정적 귀인(attribution)을 대치시킬 수 있는 자기-지시기법(self-instructional techniques)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 기법 중 한 가지 대표적인 것은 긍정적인 혼잣말(positive self-talk)을 가르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 분노일지(anger log)를 배우자 모두에게 교재로 주는 것이다(Thomas, 1992: 307~311). Taylor는 배우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지-행동-교육적 접근법을 병행한 부부 및 가족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Taylor, 1984: 212).

인지행동이론에서는 폭력이나 비폭력의 행동은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강화되었다고 간주한다. 폭력은 남편의 스트레스 감소나 불안 해소방법으로 강화되며, 폭력행동의 근본원인은 남편의 비이성적인 인지작용이나 사회기술이 결핍되어 있을 때 발생한다고 본다. 이 접근의 목표는 폭력이란 자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폭력 이외의 대안적인 행동을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법으로는 자기관찰을 위한 분노일지 쓰기, 타임아웃(time out), 체계적인 이완훈련, 인지의 재구성, 의사소통훈련이나 자기주장훈련 등이 있다. 이 모델의 장점으로는, 방법이 구체적이고 기법위주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비교적 저항이 적고 폭력이 학습된 행동이라고 개념화함으로써 변화에 대한 희망을 쉽게 가질 수 있으며, 다른 개입모델에 비해서 단기간에 쉽게 배울 수 있어 경제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2) 의사소통 이론

체제이론 중 인공 두뇌학에 기반을 둔 의사소통이론은 가족원들이 표현하는 문제를 가족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조명한다(Nichols, 1984: 393, 재인용). 의사소통의 기술이 부족한 가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감정이입적 경청능력과 상대방에 대해 감사하고 칭찬하는 기술이 매우 부족하고 맥락 속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향을 갖는다. 실제 임상장면에서 두 사람 모두 혹은 한 사람이 화났을 경우 상대방의 약점을 건드리는 말이나 행동을 주고받으며, 그것이 자신의 인격체제를 평가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 반응하였으며 많은 부부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이들은 또한 역설적 의사소통의 역기능적

형태인 이중구속(*double binding*) 메시지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혼돈시키며, 가족 항상성(*family homeostasis*)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많다. 이 개념을 가족 내 폭력행동과 연결하여 설명하면, 보여지는 폭력행동 이면의 주 관심이슈에 대한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과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부부관계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치료적 개입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Neidig는 부부가 같이 살면서 노력하고자 하는 표현적 폭력의 경우에는 분노조절, 스트레스 관리, 의사소통 기술 그리고 갈등조정이 포함된 치료가 폭력을 제거하는 데 있어 좋은 예후를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가족의 항상성 개념은 기본적으로 가족은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체계는 항상 평형을 회복하기 위해 기능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현상은 가족체계에 불균형이 생겨나면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던 간에 그 중 한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라도 체계를 평형과 항상성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가족 체계는 역기능적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성민선, 1995: 82~86).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면 가족 폭력 속의 두 사람은 모두 역기능적 체계 속의 피해자로 간주되며 가해자 역시 희생양의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따라서 기본적인 관련된 부부 모두의 의사소통 기술향상 노력과 병리적 의사소통 방식 그리고 체계의 항상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노력이 치료적 개입에서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폭력행동의 중단이 결혼관계의 중단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3. 연구 방법

1) 연구 목적

1998년 7월 1일부터 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된 이후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주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접근은 그만큼 관심을 갖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법의 시행 이후 제기된 관심사는 가정폭력 가해자들에게 어떻게 개입하여 가정폭력을 중단시킬 것인지에 대한 사항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가해자를 위한 집단 개입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수차례에 걸친 시범적인 집단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하여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수감명령대상자들을 위해서 실시되었으며, 프로그램 진행 후 프로그램의 구성과 과정, 효과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향후 가해자를 위한 집단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집단의 운영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가해자 집단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이 있는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에도 목적이 있다.

2) 연구 평가방법

본 연구자들은 집단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시하였다.

(1) 부부폭력 조사서

부부폭력 조사서는 부부간에 발생한 폭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초기 조사서이다. 이 조사를 토대로 하여 성원들의 폭력의 수준을 파악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쓴다. 조사서 내용에는, 부부간에 발생한 최초 폭력시기, 폭력의 정도, 폭력의 심각도, 어렸을 때 부모의 폭력을 목격했는지의 여부, 술과 폭력과의 관계,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의 폭력이나 정서적 학대 경험의 여부, 폭력의 원인에 대한 소견, 부부간 폭력 문제의 해결 가능성에 대한 의견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집단과정 분석

집단 내에서 일어난 성원들간의 역동성과 내용을 중심으로 집단의 발달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집단과정을 녹화하였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 녹화된 집단과정을 2명의 보호관찰관과 매회 분석하였다.

집단과정 분석에는 ① 집단과정의 내용, ② 교육내용과 집단반응을 포함한다. 특히 집단과정의 내용에는 집단의 역동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서 집단이 매 회기마다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집단성원 상호간에 어떤 긍정적이고 교정적인 환류를 주는지를 알 수 있다.

(3) 자존감 척도(Index of Self Esteem: ISE)

이 척도는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자의 자존감의 정도, 심각성을 평가할 수 있다. 자존감은 자기개념에 대한 평가적인 요소로서 사회적,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지의 여부를 규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 설문지는 5단계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30점을 기준으로 하는 cutting score를 가지고 있어서 자존감의 정도가 임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수가 있다. 이 척도는 자존감 문제의 정도 수준 및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Walter W. Hudson이 개발한 것으로 이정숙, 양옥경(1996)이 임상사회복지 개입모형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82이다.

(4) 최종평가서

이 평가서는 12회의 집단 프로그램이 끝난 후, 개인의 의견을 적도록 되어있다. 평가 결과는 차기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해서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평가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12회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 시간과 장소에 대한 소견, 지도자의 자질, 본인의 참여 정도,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은 유익, 프로그램 참여로 인하여 변화된 자신의 생각·행동·태도, 타인과의 관계 변화, 그리고 프로그램을 위해서 제안하고 싶은 사항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갈등전략척도(CTS)와 몇 가지 다른 척도들을 사용하여 사전·사후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갈등전략척도의 경우 참석자 10명 중 6명이 별거 혹은 이혼상태에 있었으므로 사전·사후조사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으며, 문제해결 및 부부관계 척도 등도 통계상 문제가 있어 본 논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4. 프로그램 내용 및 과정

1) 집단 프로그램 참석자

폭력남편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에 참석한 성원은 총 10명으로서,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보호관찰처분에 의한 수강명령을 받은 남편들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집단성원의 평균연령은 43.3세이며, 평균학력 수준

〈표 1〉 집단프로그램 참석자 사항

번호	이름	나이(만)	학력	직업	결혼관계	수강명령시간
1	A씨	47세	초졸	노동	기혼	80
2	B씨	39세	무학	조적공(벽돌)	기혼	50
3	C씨	50세	증·중퇴	미장공	이혼	50
4	D씨	52세	고졸	회사원	별거	80
5	E씨	40세	중졸	노동	별거	50
6	F씨	42세	초졸	제과점종업원	이혼	50
7	G씨	40세	중졸	건축	기혼	80
8	H씨	44세	초졸	설티업	기혼	40
9	I씨	45세	초졸	노동	기혼	40
10	J씨	34세	전문대졸	택시운전	이혼	80
평균		43.3세	9.3년			65시간

은 낮은 편이었다. 직업군에 있어서는 7명이 노동이나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어서 직업의 특성상 집단 프로그램에 출석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평균 수강명령 시간은 65시간이었고 이번 프로그램이 4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종결되는 사람은 2명이었고, 50시간 수강 명령자는 나머지 10시간을 다른 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6명은 본 프로그램을 마치면 법정 수강명령시간을 종결하게 된다. 나머지 4명은 2차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2) 프로그램 실시일 : 1999년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총 12회 실시되었다.

3) 집단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침들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침을 설정하였으며, 첫 집단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프로그램의 목표와 운영방법을 설명하였다.

(1) 프로그램 목표와 주 내용

본 프로그램은 자신의 폭력행동을 인정하고, 그 행동이 부부와 가족의 갈등관계에

미치는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여, 이후 자신의 행동변화를 통해 부부 및 가족관계의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

- ① 참석자는 자신의 폭력행동과 그 행동이 기여한 역기능적인 면에 대한 책임을 수용한다.
- ② 참석자는 자신과 배우자에게 변화를 위한 다짐(*commitment*)을 한다.
- ③ 참석자는 자신과 배우자 간 갈등관계의 독특성과 갈등상황의 연계성을 발견한다.
- ④ 참석자는 타임아웃과 더불어 구체적인 분노조절 기술을 획득한다.
- ⑤ 참석자는 갈등상황에서의 효과적인 문제해결과정을 익힘으로써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한다.

(2) 프로그램 참가대상자 및 자격요건

- ① 본인 스스로 가해자임을 인정하거나 법적으로 인정된 사람
- ② 정신적 증상(예: 심한 우울증)과 술문제가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람
- ③ 폭력행동 유형이 도구적 폭력에 속하지 않는 사람
- ④ 폭력행동 문제가 만성적이지 않은 사람

위의 사항 중에서 ①과 ②의 경우는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며 ③과 ④의 경우는 집단지도자의 사정(*assessment*)과 변화를 위한 참석자의 동기 정도를 참조하여 집단지도자가 판단한다.

(3) 초기면접 및 예비모임

초기 사정은 담당 보호관찰관의 개별사정이 끝난 후 개별면접 또는 예비모임을 통한 집단사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 동안에 다루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가족폭력 초기 조사서를 작성하여 폭력관계의 기간과 수준에 관하여 사정한다.
- ② 폭력재발의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시에는 보호관찰관과 논의하고 개별적으로 또는 부부면접을 통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한다.
- ③ 예비모임과 마지막 모임에서는 가능한 한 부부가 동시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4) 프로그램 형태

① 프로그램 구성 : 폐쇄집단으로 구성하며, 1회의 예비모임과 12회의 집단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② 프로그램 운영 : 각 회기(session)는 약 2시간 반 동안 아래와 같이 운영된다.

가. 인사 및 지난 시간의 요약, 미해결문제 해결 : 20분

나. 집단토론 : 1시간

다. 휴식 : 10분

라. 교육, 역할극 실연 및 집단요약 : 1시간

마. 과제제출과 확인, 평가서 작성 : 30분

③ 참고사항 : 매 회기마다 폭력재발 가능성 여부를 사정하며, 위기개입이 필요할 때에는 공동치료자, 담당 보호 관찰관과 협의하여 집중적인 개별치료가 필요하면 유료상담 및 치료기관으로 의뢰한다.

④ 집단지도자의 구성 및 역할

집단지도자는 남/여 각 1인이 공동치료자(co-therapist)로서 참석하며, 교육자, 촉진자, 치료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본 논문을 작성한 두 명이 지도자로 개입하였다.

(5) 프로그램 규칙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집단규칙을 정하였고, 이 내용들을 초기 모임에서 집단참석자들이 충분히 숙지하도록 설명하였다.

① 집단프로그램 참석시에는 음식물/술 섭취를 금지한다.

② 전체 집단과정 중에서 보호관찰관의 허락하에 2회까지 결석이 허용되지만 누락된 시간만큼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시간을 보충한다.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며 시작 20분 후에는 입실이 금지되며 결석으로 간주한다. 전체 집단프로그램 중 2회 이상 결석시 다른 기회에 마련되는 프로그램에 처음부터 다시 참석하여야 한다.

③ 집단 내에서 발생한 일과 대화내용은 비밀을 보장하며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④ 가능한 한 한 사람씩 골고루 말하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한다.

⑤ 모든 과제는 반드시 해오며, 매번 평가시간에 과제를 확인한다.

4) 집단 프로그램 내용(1회~12회)

〈표 2〉에서 제시한 집단프로그램은 폭력남편의 폭력행동을 중단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기본 원칙은 과거력이나 병리적 양상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두고, 참석자 자신의 강점과 부부 및 가족관계에서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다. 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해서 주로 사용한 이론모델은 인지행동 모델과 의사소통 모델이며, 인지적 재구조화, 의사소통기술, 행동주의 기법, 역할극 시연 등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교육시간에는 치료자들이 만든 자료집을 활용하였다.

〈표 2〉 12회 집단프로그램 내용

회기	자료집 내용	프로그램 내용
1회	주제 : 프로그램 원칙 1. 프로그램 원칙 2. 프로그램 참석자 계약 3. 태도조사 4. 분노의 학습	1. 집단 및 집단규칙 소개 2. 개별소개 3. 프로그램 원칙에 관한 토론 및 동의 4. 프로그램 참석자 계약 5. 태도조사 survey 6. 분노의 학습(숙제)
2회	주제 : 타임-아웃 1. 폭력의 사이클 2. 타임-아웃 소개 3. 타임-아웃 계약서 4. 분노일지-1	1. 이름부르기 게임 2. 필름감상 및 팀별 토론 3. 폭력의 사이클 4. 타임-아웃 소개 5. 타임-아웃 계약서작성 6. 요약하기 7. 숙제(분노일지-1, 타임아웃계약서)주기 및 평가
3회	주제 : 스스로 화나게 하는 생각 1. 스스로 화나게 하는 생각들 2. 화나는 생각을 물리치는 생각들 3. 분노일지-2	1. 이름부르기 게임 2. 지난주간 폭력여부확인 : 집단토론 3. 스스로 화나게 하는 생각들 4. 화나는 생각을 물리치는 생각들 5. 요약하기 6. 숙제(분노일지-2)주기 및 평가

(다음 쪽에 계속)

4회	<p>주제 : 분노조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합리적 믿음 분석 2. 분노일지 분석법 3. 분노 주간보고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름 부르기 게임 2. 비합리적 믿음 분석 3. 분노일지 분석법 4. 요약하기 5. 숙제 (분노 주간보고서) 주기 및 평가
5회	<p>주제 : 성격과 스트레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A, B 타입의 성격유형 2. 사회제적응 척도(스트레스) 3. 분노일지-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름 부르기 게임 2. 지난주간 폭력여부확인 : 집단토론 3. A, B 타입의 성격유형 4. 사회제적응 척도(스트레스) 5. 요약하기 6. 숙제 (분노일지-2) 주기 및 평가
6회	<p>주제 : 중간평가 및 catch-u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노일지-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노일지-2(숙제) 2. 요약하기 3. 숙제주기 및 평가
7회	<p>주제 : 의사소통과 단호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사소통기술 평가서 2. 긍정적 행동향상 평가 3. 분노 주간보고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름 부르기 게임 2. 지난주간 폭력여부확인 : 집단토론 3. 의사소통기술 평가 및 역할극 4. 긍정적 행동향상 평가, 5. 분노 주간보고서 6. 요약하기 7. 숙제 (긍정적 행동 향상 평가, 분노 주간 보고서) 주기 및 평가
8회	<p>주제 : 갈등해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권리현장 2. 갈등행동의 3가지 유형 3. 갈등해소 스타일 평가 4. 분노일지-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름 부르기 게임 2. 권리현장 : 집단토론 3. 갈등행동의 3가지 유형 4. 갈등해소 스타일 평가 및 역할극 5. 분노일지-2(숙제) 6. 요약하기 7. 숙제 (분노일지-2) 주기 및 평가
9회	<p>주제 : 문제해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제주인 찾기 2. 분노일지-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름 부르기 게임 2. 지난주간 폭력여부 확인 : 집단토론 3. 문제주인 찾기 및 문제해결연습 4. 요약하기 5. 숙제 (분노일지-2) 주기 및 평가
10회	<p>주제 : 성과 질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에 관한 태드조사 2. 질투심 3. 분노일지-2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름 부르기 게임 2. 성에 관한 태드조사 3. 질투심 4. 요약하기 5. 숙제 (분노일지-2) 주기와 평가

(다음 쪽에 계속)

11회	주제 : 지지체계 1. 지지체계 평가 2. 분노일지-2	1. 이름 부르기 게임 2. 지난 주간 폭력여부 및 숙제확인 : 토론 3. 지지체계평가 4. 요약하기 5. 숙제 (평가 및 유지계획서) 주기와 평가
12회	주제: catch-up 및 평가 1. 평가 및 유지계획	1. 각 성원의 유지계획발표 및 배우자 코멘트 2. 전체평가 3. 수료증 수여

5. 결과 분석

1) 집단과정에 대한 분석

집단의 변화과정을 알기 위하여 매회 녹화된 집단과정을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회 집단과정 분석

① 집단과정의 내용

처음 모임이고 공식적인 행사여서인지 분위기가 다소 긴장되었다. 집단에 참여한 사람들도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색한 관계였고, 성원들은 주로 수동적으로 듣는 입장에서 모임에 참여하였다.

집단성원 각자에게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리고 싶은 이름을 소개하도록 하였다. 돌아가면서 집단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순서를 가졌다. 모임 초기에는 다소 긴장된 분위기였으나 이름 부르기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생기고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처음 만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가 어색한 면이 있었지만 성원이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웃는 모습을 보이며 어색한 집단분위기에 대처했다.

먼저 이 자리에 오게 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A씨가 먼저 자발적으로 말했다. 자신은 어린 시절에 부모를 일찍 여의고 두 동생과 무작정 상

경해서 고생을 심하게 했던 얘기, 부인과의 어려운 만남에 대한 얘기,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얘기를 개방적으로 표현하자 집단 내에는 자발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폭력 행동이 있었던 날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IMF 시대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영하던 가게를 밀치고 팔았다. 그 동안 자신의 도움을 받았던 처가 식구들의 무관심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생겼다. 화가 난 상태에서 자려고 방에 눕자 아내가 와서 화해의 얘기를 했지만, 화가 치밀어 올라서 순간적으로 아내의 얼굴을 때렸다. 큰 아이가 와서 자신에게 대항하였고 그 일이 있는 후에 경찰이 왔다. 자신은 그 당시에 가정폭력방지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게 가정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반항하기도 했다. 어릴 때부터 동생들을 데리고 가장으로서 살아남겠다고 발버둥치다 보니 성격이 긍정적으로 되기보다는 방어적이고 공격적인 성격으로 발전했다. 평소에는 아내에 대한 폭력이 없었으나 순간적인 반응 때문이었다고 하였다. A씨의 얘기를 듣고 있던 B씨도 자신도 어릴 때 부모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을 나타내었다. 집단성원 중에서 같은 처지에 있던 두 사람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B씨는 주로 아내가 집 가까이에 있는 친정집에 가서는 며칠씩 집에 오지 않는 문제로 다툼 적이 많았다. 어린 아이들을 두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B씨는 ‘차라리 내가 죽겠다’며 식칼을 자신의 배에 대었다. 이 일로 처가 식구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처가 식구들에 대한 섭섭한 감정을 표현하였다. C씨는 이전에 술을 먹고 귀가하자 아내가 문을 안 열어주어서 대문을 부순 적이 있었는데 이 일로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검찰에서 오라고 했지만 출석하지 않아 이혼처리가 되었다고 하였다. D씨는 주로 부부싸움을 하면 집안 물건을 내동댕이치며 화풀이를 하였는데 아내가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했고 정신적 안정을 요하는 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에 제출한 후, 어느 날 갑자기 경찰에서 소환장이 날아왔다. 자신의 부부싸움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표현했고, 부부싸움을 하는 많은 가정 중에서 단지 경찰의 눈에 띄어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였다. ... I씨는 IMF로 인해서 아내가 식당을 운영하는 데, 늦게까지 영업을 해서 미안한 마음에 술 한잔을 하고 노래방에 갔다가 나오는데 아내가 그때까지 영업을 하고 있어서 집으로 가자고 하니까 가게문을 안에서 잠갔다. 화가 나서 망치로 문을 부시려고 하자 아내가 말렸고 이를 뿌리치려다가 아내가 망치에 맞았다. 그 일로 경찰이 왔다고 하였다.

대체로 집단성원들은 자신의 폭력행동이 일어나게 된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상대방

이 자신의 폭력행동을 촉발시킨 원인도 있다며 자신의 폭력행동을 다소 합리화시키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② 교육내용(분노의 학습)과 집단반응

교육은 ‘분노의 학습’에 대한 내용으로 집단원들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유도하였다. 집단성원들은 자신의 가정분위기에 대한 얘기를 하였다. ‘아버지께서 화가 나면 주로 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하셨다’, ‘부모가 다툼이 있으면 아버지는 물건을 집밖으로 던지는 일이 많았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성질이 급하셔서 아버지를 무섭게 생각했다’, ‘교육자 집안에서 자라면서 아버지로부터 남에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좋다는 훈계를 많이 듣고 자랐다. 나는 화가 나도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삭히는 편이다’, ‘어릴 때 동생들을 데리고 고생을 많이 했고, 대화 상대자라곤 동생들밖에 없었다’라는 표현을 하였다.

집단성원들은 대체로 분노가 학습된다는 사실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였다. 분노를 느낄 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에도 동의하였다.

(1회 중간 부분과 2회~11회 집단과정 분석의 전체 내용은 학회지 게재 페이지 제한을 맞추기 위해 중략한다.)

(12) 12회 집단과정 분석

① 집단과정의 내용

마지막 모임 시간이 임박해졌는데도 C씨가 오지 않자 나머지 성원들이 함께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데 왜 오지 않는지를 걱정했다. C씨가 오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만나질 일만 채우고 부랴부랴 왔을 때, A씨를 비롯한 집단성원들이 자신을 걱정하면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접했다면서 동료들에게 감사의 말을 표했다.

② 교육내용과 집단반응

12회 모임은 30분간 보호관찰소 과장과의 만남, 1시간 동안 집단모임, 1시간 동안의 평가서 작성시간, 그리고 나머지 남은 시간을 사례관리자와 사무관 1인, 두 명의

집단지도자 모두를 포함한 평가시간, 수료증 전달 시간으로 진행하였다.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서로에게 감사했고 마지막 모임이라는 사실을 아쉬워했다. 이들은 비공식적 자조모임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했으며, 이미 성원들 스스로가 작성한 연락처에 지도자 두 사람의 연락처를 추가함으로써 마지막 시간에 야기되는 분리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보호관찰관과의 전체 모임에서 다시 한번 폭력재발의 방지를 위한 노력이 강조되었고 대부분의 성원들은 충분한 이해를 하고 있었다.

2) 자존감 척도(ISE)에 의한 평가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한 집단원들의 자존감 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 전과 후에 자존감 척도(*Index of Self Esteem*)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P값이 .035로서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자존감 척도(ISE)는 30점(±5)을 기준으로 하여 cutting score를 가지고 있다. 점수가 30점이 넘을 경우에는 자존감에 있어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며, 30점 이하일 경우에는 자존감의 문제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표 3>에 의하면, 집단 프로그램 실시 평균점수가 37.10으로서 집단원들의 자존감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였으나, 프로그램 실시 이후의 측정결과에서는 30.30점으로 자존감이 긍정적으로 향상하였음을 볼 수가 있다. 5점수 내외의 점수 편차를 감안할 때 심각한 자존감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번에 실시한 집단프로그램이 집단원들의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을 운영한 연구자들의 집단경험에 의하면, 모임 초기에 집단원들은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self concept*)이나 자기이미지(*self image*)

<표 3> 자존감 척도(Index of Self Esteem: ISE)

하위척도	실시기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value	P
자존감	사전	10	37.10	6.2539	2.279	.035*
	사후	10	30.30	5.4875		

P<.05*

가 상당히 부정적이고 패배적이었으나,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발견하고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긍정적인 환류를 주면서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향상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3)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1) 프로그램 내용

10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86%가 매우 유익하거나 유익한 편이라고 대답함으로써 본 집단프로그램이 참석자들에게 유익했음을 알 수가 있다.

(2) 집단지도자의 자질과 자신의 참여 정도

집단지도자는 참가자의 참여를 적극 격려했는가?, 프로그램내용을 잘 준비했는가?, 프로그램을 친절하게 진행했는가?, 전문기술이 풍부했는가? 프로그램을 조직적이고 분명하게 진행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5점 만점에 평균 4.48점으로 비교적 집단지도자의 집단운영에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였다.

<표 4> 집단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평가

항 목	매우 유익했다	유익한 편이었다	보통이다	별로 유익하지 못했다	전혀 유익하지 못했다
분노의 학습	7명 (70%)	2명 (20%)	1명 (10%)		
타임아웃 계약서	6명 (60%)	3명 (30%)	1명 (10%)		
비디오테이프 (크리스마스이브)	4명 (40%)	4명 (40%)	2명 (20%)		
화나게 하는 생각들	2명 (20%)	6명 (60%)	2명 (20%)		
분노일지	4명 (40%)	4명 (40%)	2명 (20%)		
타입 A성격과 스트레스 측정	4명 (40%)	5명 (50%)	1명 (10%)		
의사소통원칙과 기술	6명 (60%)	3명 (30%)	1명 (10%)		
갈등해소 스타일	3명 (30%)	5명 (50%)	2명 (20%)		
문제주인찾기	1명 (10%)	7명 (70%)	2명 (20%)		
지지체계 평가서	6명 (60%)	4명 (40%)	0명 (0%)		
전반적인 평가	47%	39%	14%	0%	0%

자신의 참여 정도를 묻는 질문으로는 나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프로그램에 흥미가 있었고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 권하고 싶다는 항목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하여 참석자들은 5점 만점에 평균 4.2점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집단성원들은 집단을 시작한지 처음 5회까지는 '내가 왜 여기에 와있어야 하나, 너무 심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나서 짜증이 났지만 집단이 진행될수록 재미가 있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면서 반성을 많이 했고 때로는 죄의식을 느끼기도 했다, 생각과 실천을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앞으로 나와 상대방을 동등하게 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며 앞으로는 가정생활에 충실해야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된 점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고서 처음에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 힘들었으나, 서로가 비슷한 입장이라는 생각으로 표현이 어렵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집단 내에서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여러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직선적인 성격이 좀 완화된다고 가정과 회사에서 나의 급한 성격을 다스릴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가정이 원만해졌다. 부부관계도 많이 변화되었고 아내도 많이 변했다.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좋았다. 적극적으로 참가했다는 점이 앞으로의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여러 사람과의 좋은 만남으로 인생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참가자들과의 공유 경험, 성원들로부터의 교정적인 환류와 지지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동은 물론 부부관계와 대인관계가 변화되었다고 하였다.

(4) 자신의 행동이나 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변화된 점

나 자신을 생각하며 과거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다. 분노의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수 있었고 사회생활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생긴 것이 변화된 점이다. 또한 나보다는 상대의 입장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전에는 무슨 일이든지 급하게 행동했는데 이제는 행동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고 행동에 옮겨야겠다는 여유가 생겼다. 폭력행동보

다는 자신의 분노를 억제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겠다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행동을 하기 전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하였다.

부부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서 아내와 대화가 늘었고 아이들도 안정감을 찾았다. 아내와의 관계에서는 아직 큰 변화가 없지만 회사 내에서는 직장 동료들이 나에게 많은 변화가 있고 상대를 배려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상대방을 좀더 많이 배려하게 되었다는 의견이었다.

(5)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과 타인에게 권유 여부

프로그램이 각 개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집단성원 모두가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했고, 10명 중에서 6명은 교육의 효과가 거의 평생 지속될 것이라며 다소 과장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응답이 실현되는 것을 보려면 충분한 기간을 통하여 추적 조사를 해야 알겠지만, 그들의 대답을 종합해 보면, 집단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다.

이 프로그램이 지속된다면 타인에게 참석을 권유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강의를 듣고 토론을 하니까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겼고 대화를 하면서 나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하고 싶고 나의 변화된 경험을 나누고 싶다. 돈을 주고도 배울 수 없는 시간이기에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다. 특히 가정폭력이란 영원히 없어져야 하며 원만한 부부관계와 가정생활을 원한다면 누구나 한번은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이다라는 대답을 함으로써 타인에게 권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였다.

(6) 향후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한 제안 사항

대부분의 성원들은 부부가 함께 집단 교육과정에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부부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어떤 성원들은 집단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개별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나서 공동적인 문제를 가지고 집단을 운영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고, 시청각 교재 확충이나 여러 명의 강사진이 참여하는 등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길 바라는 성원도 있었다. 특히 수강교육 기간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면 자신들의 생업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결론 및 제언

1997년 12월 가정폭력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1998년 7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이 분야에서의 보다 체계적인 개입이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 일환으로 확인된 남편의 폭력문제에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인가에 관한 프로그램을 수강명령대상자를 중심으로 집단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연구자들은 프로그램평가를 위해서 각 성원들로부터 가정폭력 초기조사서, 매회 평가서, 프로그램 최종 평가서, 그리고 자존감 척도를 실시하였다. 보호관찰관들로부터는 수시로 수강생에 관한 법적 상황, 가족 등에 관한 자료와 매회 집단 후 환류와 위기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논의하였던 자료를 참고하였다. 두 명의 집단지도자와 담당보호관찰관은 매회 녹화된 집단과정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써 차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들을 협의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본 집단프로그램은 폭력남편들의 행동변화와 태도변화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발적으로 모집된 부부집단 프로그램(권진숙, 1995)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논문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모든 가해자들에게서 보여지는 대표적인 특성 중 한 가지가 자존감 저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논문에서 나온 자존감에 대한 평가와도 일치하는 점이 있다.

② 위에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서구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보호관찰관의 지지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Kemp, 1999: 239, 재인용)되고 있었으며 본 프로그램에서도 집단 치료자와 보호관찰관 사이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프로그램 성공에 큰 변수로 작용했다. 초기에 프로그램 지도자들은 부인들을 위한 교육을 중심으로 한 자조집단을 별개로 운영할 것을 계획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1회 모임 후 취소하였다. 보호관찰관은 단지 수강자들의 법적, 행정적인 관리뿐 아니라 수강자들에 대한 경찰과 법원에서의 처벌위주의 접근이 아닌 인본주의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그들 가족과의 접촉을 수시로 하여 폭력행동 재발여부와 집단프로그램의 효과가 가정에서도 적용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리하여 치료자들에게 피드백을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프로그램 지도자가 전체 환경이라는 맥락 속에서 수강자를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본다. 전문가들은 법정과 이와 같은 점은 기존의 다양한 연구가 보여주는 가정폭력의 법률적/사회사업적/행정적/인상적 팀 접근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결과라고 본다.

③ 본 프로그램은 보호관찰관을 통한 초기조사서 수집을 제외하면 집단지도자들이 각 성원들과의 사전면접을 통한 초기 인테이크를 실시하지 않고 수강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대면경험이 없는 가운데에서 집단프로그램으로 실시되었다. 집단지도자들이 사전에 참가자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를 가지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이 때로는 집단원을 이해하는 데에 방해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이러한 과정은 집단지도자들이 성원들에 대한 불필요한 선입견을 없애고 임상적이고, 치료적인 개입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고 본다. 또한 치료과정에서 집단과정의 발달과 함께 집단지도자들이 집단의 역동과정 속에서 성원들과 함께 발전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성원들도 지도자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편견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게 됨으로써 집단 저항을 최소화할 수가 있었다.

④ 가해자를 위한 집단프로그램 유형을 분류하면, ㉠ 의식의 변화에 중점을 두는 모델, ㉡ 폭력행동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 중심모델, 그리고 ㉢ 집단역동과 집단과정에 중점을 둔 모델로 구분한다. 이 세 가지 모델 중에서 본 모델은 집단역동과 집단과정에 비중을 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기존의 가해자 프로그램들은 ㉠와 ㉡의 모델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본 프로그램은 그 이론적 기반을 인지-행동적 재구조에 두고 있었으나 집단유형에 관한 선택에 있어서는 기존의 연구들이 일반적으로 의식교육 혹은 자료중심 교육 프로그램에 초점을 둔 것과는 달리 수강자 자신과 주변의 강점 확인, 사례판타 기법 및 집단 역동을 이용한 지지적 집단과정을 중심으로 운영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수강자들의 저항을 빠른 기간 내에 줄일 수 있었고, 그들의 폭력에 대한 태도변화를 도출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한국적 모델개발을 하는 데 참고해야 할 중요한 기초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위의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향후 개발될 한국에서의 가해자 프로그램개발과 적용을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 수강자들의 수강시간과 기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성, 객관성, 융통성이 필

요하다. 예를 들면, 본 집단에 속한 10명의 수강자 중에서 행동과 태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가장 오랜 시간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자타가 시인한 2명의 수강생의 경우에 오히려 가장 짧은 기간의 수강명령이 주어진 반면, 집단프로그램 참석을 통해 충분한 변화를 보여준 수강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최장의 수강시간을 선고받은 경우가 그 예이다. 물론 법원의 결정에서 가해자의 폭력행동 정도에 따라서 합당한 결정을 내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성원 각자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입체적인 관점에서의 스크리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하기 전에 법원과 보호관찰체계 그리고 보호관찰체계와 치료개입체계 간의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협조체계는 보호관찰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보호관찰소에서는 가해자뿐 아니라 아동에 대한 개입, 가족치료 및 교육 그리고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민간의 협조를 얻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모든 연계망의 구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 법원과 보호관찰체계와의 협조관계가 필요하다. 가정폭력 사범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시간 및 기간의 예를 들면,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40시간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치료적 개입을 하고 그 후에 최소 6개월~최장 2년까지의 관찰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겠다. 그리고 개입수준을 5단계로 나누어서, (1) 1단계 : 예방집단 및 교육(20명 내외, 6회), (2) 2단계 : 집단프로그램(12명 내외, 12회), (3) 3단계 : 개별치료+ 집단치료, (4) 4단계 : 개별치료+ 집단치료+ 부부 및 가족치료, (5) 5단계 : 가족으로부터의 완전격리 등의 방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다 나은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기관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보호관찰체도가 잘 발달된 서구의 경우를 연구하거나 견학하는 등의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가정 내에 폭력행동이 있었다고 보고된 사례가 없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여진다. 만약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폭력행동이 일어날 것에 대비한 폭력재발의 수준, 평가, 대처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지침 설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가족원의 정식고발이 없을 경우라도 집단프로그램 중에 자신의 가정에서 폭력재발이 있었다는 사실이 타인이나 본인에 의해서 보고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처럼 가족원의 신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경우에도 타의에 의한 보고와 동일하게 법적인 제

재가 가해져야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㉔ 가정 내 폭력행동을 다룸에 있어서 가정폭력 문제와 많은 관련성을 갖는 알코올, 약물, 부모교육, 이혼에 관한 상담 및 치료를 위한 의뢰 및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전달 체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집단의 경우에도 10명 중 6명이 별거 혹은 이혼 관계에 있었고, 알코올 문제가 우선적으로 보여지는 경우에 이들에게는 배우자 간의 폭력행동 재발 방지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알코올 문제나 가족간의 관계 문제를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도와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폭력행동과 관련된 문제들을 연계시켜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와 통합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있어야 할 것이다.

㉕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이란 집단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은 효과가 지속성이 있을 때 더욱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집단 과정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자조모임에 대한 공식적 개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조집단 지도자와의 정기적인 만남과 격려, 모임을 위한 장소제공, 추후조사를 위한 자료수집 등에 관한 협조가 필요하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집단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위한 다학문체계간의 충분한 준비와 논의과정, 그리고 프로그램의 내용, 기간, 대상자 등에 대한 합의 등 여러 가지를 해결해야 할 선행과제들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없는 가운데 본 프로그램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강자들뿐 아니라 보호관찰관과 집단지도자 모두가 집단의 변화과정을 볼 수 있었고 각 성원들의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제시한 자료들이 한국적 모델개발을 위해서 진요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그렇게 되리라 확신한다.

• 참 고 문 헌 •

- 권진숙, 1996. “배우자학대 부부집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경호, 1997. “매맞는 아내에 대한 여성중심적 사회사업 개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인숙, 1998. “구타남편에 대한 사례연구: 여성주의 사회사업 개입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 2호.
- 김인숙·김혜선·신은주, 1997. 《여성운동과 사회복지: 학대받는 여성의 쉼터연구》. 나남.
- 김재엽, 1998. “한국가정의 폭력실태와 사회계층 변인과의 관계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 제 35호.
- 김지영, 1995. “학대받는 아내들을 위한 사회복지관련 기관의 서비스 현황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희자, 1996. “학대받는 아내들의 쉼터 프로그램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미은, 1995. “매맞는 아내들의 학습된 무기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신은주, 1995. “아내학대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에 관한 사회사업적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승열, 1995. “아내구타에 대한 사회적 대책 및 쉼터운영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과 미국의 경우.” 계명대학교 여성학대학원 가족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한미자, 1995. “학대받는 아내를 위한 쉼터운영의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허남순, 1995. “아내구타: 해결중심 단기 가족치료모델의 적용.”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 3호.
- Ammermam, Robert & Hersen, Michel, ed. (1999) *Assessment of Family Violence*, John Willy and Sons Inc.
- Bandura, Albert(1986). *Social Formulation of Thought and Action*. Prentice-Hall, Inc. England of Cliffs. New Jersey.
- Crites, Laura(1990). “Cross-cultural Counseling in Wife Beating Cases,” *Response/Issue* 77, Vol. 13, No. 4.
- Davis, Liane(1987). “Battered Women: The Transformation of a Social Problem,”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 Kemp, Alan(1998). *Abuse in the Family*.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Neidig, Peter H. (1984). *Spouse Abuse*. Research Press Company, Illinois.
- Neidig, Peter H. (1985). *Domestic Conflict Containment Program Workbook*, Behavioral Science Associates, Inc.
- PageLOW, Lloyd W. (1984). *Family Violence*. Praeger.
- San Diego County Task Force on Domestic Violence - Treatment and Intervention Standards (<http://connect.org/bisc/standards/sandiago.html>).
- Saunders, Daniel G. (1984). "Helping Husbands who Batter." *Social Casework: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Work*.
- Star Barbara (1980). "Patterns in Family Violence." *Social Casework: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Work*.
- Taylor, John W. (1984). "Structured Conjoint Therapy for Spouse Abuse Case." *Social Casework: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Work*, January, 1984.
- Thomas, Michele Burhard. (1992). *An Introduction to Marital and Family Therapy*, NY: Merrill Domestic Violence Handbook (<http://www.domesticviolence.org/intro.html>).
- U. S. Army Family Advocacy Program Spouse Abuse Manual (<http://child.cornell.edu/ar:ny/spamindex.html>).

A Study on the Group Intervention for Family Violent Offenders

Kwon, Jin-Sook (Korea Christian University)

Chun, Suk-Kyoun (Korea Christian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periment a modified domestic conflict containment program(DCCP) which was initially development for developed by Dr. Neidig on 10 Korean offenders, and to provide practical basement for development of Korean offenders' group. This modified group program is based on cognitive-behavioral and communication theories. The group was leaded by 2 therapists, one female and one male, and continued 12 consecutive weeks, each week for 2 1/2 hours. The evaluation on the program is based on 4 different data: 1) intake form for spouse abuse, 2) group leader's summary on each session based on video taping and an analysis after each session with two probation officers in charge for the offenders, 3) clinical measurement for self esteem(ISE), 4) daily self report on each session and the final evaluation form by the group members. The result was shown consisently that this program achieved the purpose of this study across the all 4 data. Therefore, we suggest our experimental study will be able to provide a practical basement for future development of group treatment model for Korean offenders.